월요광장

광주다운 도시 경관 형성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도시재생연구소 이사

요즘 '풍경을 만지다'(風景にさわる)라는 책을 번역하면서 '경관이란 우리 삶 속의 소소한 모든 것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 흔히 도시적 측면에서 재생이나 개발, 환경 등을 넓은 의미로 이야기 하곤 한다. 하지만 도시민의 삶에서 정리되고,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 그러니까 결론은 '경관으로 모든 것을 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그래서 광주다운 도시 경관이 무엇일까, 광주다운 도시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 끝에 이번엔 도시 경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기로 한다.

도시 경관은 도시의 얼굴이자 이미지인데 도시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기도 한다. 경관은 그 자체가 시각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지만 도시 경관은 도시민들의 일상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최근 광주의 도시 개발은 단기간 집중 개발로 인해 고층·고밀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주변 지역과의 시각적 부조화는 도시 경관의 질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향후에도 지속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광주시는 행정적인 대응책으로서 경관 및 건축 심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경관 관리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바람직한 광주의 도시 경관상에 대한 방향 설정도 미흡한 실정이다.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라 시민들의 도시 경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서 광주시 차원의 새로운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광주시는 광주 아트폴리스와 총괄 건축가 제도 그리고 광주다운 공동 주택 방향 등 적극적으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광주다운 경관 형성을 위한 노력이라 생각된다.

물론 시민들이 만들어 가는 생활 전반에 걸친 다양한 경관 형성을 통해 광주다운 경관이 완성되는 것이지만 광주시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생각으로 시 전체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해야 현재 광주 경관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또 앞으로의 경관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광주시 건축주택과에서 광주 건축 단체들과 광주다운 공동 주택 형성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고 한다. 이는 광주 경관을 형성하는 데 바람직한 방향이라 생각한다. 협약에서는 다양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선언했던 광주다움을 실현할 수 있는 큰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광주는 인권 도시를 선언하고 누구나 마음 편히 살아가는 도시, 문화 도시, 지역 정체성을 나타내는 도시 조성을 목표로 광주시 인본 디자인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이는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다움과 통하는 부분이 많다. 인권, 인본 문화 이러한 부분을 공동 주택 디자인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광주만의 공동 주택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쉽게 생각하면 모든 사람을 위한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안전을 고려한 설계가 답이 아닐까 싶다. 예를 들면 고층 이상 공동 주택은 주동 중간층에 피난이나 방화에 필요한 층이나 주동 간의 오버브리지를 설치하는 것이다. 세대별로는 돌출형 피난 발코니 설치, 지상에는 마지못해 만든 공개 공간이 아닌 실질적인 개방된 공간을 설치한다. 이런 노력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면 자연스럽게 단지의 디자인이나 안전적 측면에서 광주다운 공동주택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물론 현재에도 위에서 말한 디자인을 접목한 공동 주택들이 있긴 하다. 다만 이러한 디자인이 반영된 공동 주택 단지에는 광주시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분위기를 고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경관 계획의 실행력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경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07년 경관법이 만들어지면서 경관 계획을 분리하여 수립하고 있으나 실행력적 측면은 약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 경관 계획이 실행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의 유기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상의 목표와 개발 방향 및 보존 방향 이러한 내용과의 정합성을 가지고 이를 토대로 도시의 큰 이미지와 도시 경관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에서 반영해야 실행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도 도시 기본계획, 재생 계획, 경관 계획이 함께 협력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실행력과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법조칼럼

민주 시민 교육과 정치 교육에 대한 단상

이대규
변호사·법률사무소 소통

최근 야당의 전당 대회에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의 의사 표현 방식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방식의 의사 표현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지지율을 올리기는커녕 오히려 지지율을 떨어뜨리며, 나아가 국민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해 그 후보자가 속한 정당에 대한 지지율까지 떨어뜨린다.

여야를 막론하고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나 선거 운동원 또는 후보자가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성향을 가진 유권자나 선거 운동원 또는 후보자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종종 민주주의의 전제인 다양한 가치의 존중을 도외시하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는 다양한 가치의 존중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치와 같은 독재 정치로 변질될 수 있음을 역사를 통해 배운 바 있다. 유권자나 선거 운동원 또는 후보자가 다양한 가치의 존중을 무시하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정치적인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는 것은 그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나라 민주 시민 교육과 정치 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 시민이라면 다른 사람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고 실현해야 한다.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민주 시민 교육 또는 정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독일은 나치 정권에 대한 반성으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하는 민주 시민 교육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하게 여겨오고 있다.

예컨대 어린이·청소년 전문 TV채널에선 정치 프로그램을 고정적으로 편성하고, 어린이·청소년이 직접 취재하고 앵커를 맡으며 해설도 한다.

가정에선 어린이·청소년들은 정당별 환경 정책에 대해 부모와 토론한다. 학교에선 정치 과목과 더불어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모의 선거 등 다양한 정치 교육을 한다. 사회에선 연방 정부와 주 정부의 정치 교육원이 시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민주 시민 교육 프로그램을 거의 무료로 진행한다. 이러한 교육이 현재의 독일을 모범적인 민주 국가로 우뚝 서게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사료된다.

이에 반해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정치 교육은 TV채널의 시사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영상 정도가 전부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들의 정치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 임원 선거는 그 취지를 한참 벗어나 인기 투표로, 심지어 대학 진학을 위한 스펙 쌓기로 전락한 지 오래다. 과거 소수 진보 정당이 일상 속에서 당원들에게 정치 교육의 장을 마련해 적극 실천한 바 있으나 거대 정당들이 정당법을 개정해 지구당을 폐지함으로써 그러한 활동은 위법한 것이 되었다.

어린이·청소년시기부터 은퇴한 후까지 평생에 걸쳐 민주 시민 교육과 정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이제는 이에 관심을 갖고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일상 속에서 시민들의 토론을 통한 정치 교육을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이 가지는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표현하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정치 과목 등의 정치 교육을 통해 전문적·직업적 정치인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면 정치인이야 말로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여야 한다. 준비된 정치인이라면 막말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거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유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 시민 교육과 정치 교육을 받고 훈련된 시민들이야말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를 지키고 구가하기 위한 백년지대계의 기초가 될 것이다.

기 고

'태극기-우리 역사의 물결'

김태종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장

이 사진을 보신 적이 있는지? 1980년 5월 21일 오전 10시경 금남로에서 당시 한 일간지 기자가 찍은 사진이다. 계엄군은 20일 밤 광주역(당시 '신역'이라 흔히 불렀음) 앞에서, 몰려드는 시민을 향해 총질을 했고 그날 밤 최소 다섯 명의 희생자가 났다. 21일 아침 시민들은 두 구의 시신을 리어카에 싣고 공수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금남로로 들어섰다.

100년 전 한반도 전역에 태극기의 만세 물결이 넘실댔듯 5·18 광주항쟁에서도 태극기는 곳곳에 등장했다. 옛 전남도청 앞 분수대광장에서 열린 '민족민주화대성회'에서도 대형 태극기가 보였다. 계엄군에 희생당한 열사들의 시신 위에는 어김없이 태극기가 덮였다.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 사진을 다시 한 번 자세히 보시라. 깃봉에 달린 태극기 말고 시신을 덮은 수레에는 세 개의 태극기가 보이는데 그중 두 개는 액자로 된 태극기다. 액자로 된 태극기. 이것은 천으로 된 태극기가 없어 관공서나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것일 것이다. 시민들은 왜 희생자의 몸에 태극기를 두르고 덮었을까? 나라를 위한 희생, 이것 말고는 설명할 말이 없다. 이 나라는 전두환 신군부 너희들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들의 나라였던 것이다.

옛 가톨릭센터였던 금남로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는 2월 28일부터 '태극기-우리 역사의 물결'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회를 연다. 이 전시에서는 3·1 운동 시기의 태극기에서부터 최근의 '촛불 혁명 태극기'까지 총 200점의 국기를 망라해 한국의 근·현대사를 재조명한다. 전시는 크게 세 개의 주제로 구성됐다. 해방 전은 근대와 혁명 곧 저항적 민족주의 개념으로, 해방 후는 민주와 저항의 표상으로, 미래는 평화와 통일의 비전으로 태극기를 제시한다.

인류는 고대 사회부터 집단을 상징하기 위하여 동물·해·달과 같은 징표를 사용하였다. 깃발은 염색과 방적 기술의 발전에 따라 그러한 징표를 종이나 천에 표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깃발이 국가를 상징하게 된 것은 프랑스 혁명 때 쓰인 삼색기가 처음이다.

프랑스 혁명에서 프랑스 국기가 태동했듯 근대의 국기는 혁명의 과정에서 잉태된 것이 많다. 태극기도 일제 강점기에는 반외세 독립 투쟁의 표상으로 휘날렸으며 해방 이후에는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 통일 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 만큼 태극기는 당연히 대한민국과 애국심의 상징이다. 독재 시절에 국가주의와 권위주의의 표상으로 많이 이용된 것도 그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기가 대표적이다. 그때 '국기에 대한 맹세'와 '국기 하강식'도 만들어졌던 것이다. 이 시절에는 통치자와 국가가 동일시되어 태극기의 후광을 지배자나 특정 세력이 독점하다시피 했다.

이처럼 태극기는 의외로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인가. 누가 나라를 지키는가. 진정한 애국자는 누구인가…. 박근혜 부대가 태극기에 집착하는 것도 이런 이유일 것이다.

이제 5·18기록관에 오시면 조선조 말 구례 의병장 고광순이 사용한 '불원복(不遠復: 머지않아 국권을 회복한다) 태극기'와 5·18 당시 신군부의 군용 트럭에 짓밟힌 '애처로운 태극기'도 만날 수 있다. 우리의 근·현대사는 태극기를 매개로 이어지고 있다.

태극기는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 아무나 태극기를 흔들 수는 있지만 누구나 태극기의 주인은 아니다.

社 說

도시 재생 사업 '빈익빈 부익부' 부추겨서야

노후하고 쇠락한 구도심을 되살리기 위한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광주 지역 지자체의 재정을 옥죄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공모하면서 자치 단체에 사업비의 절반을 일괄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서다.

광주에서는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도시 재생 뉴딜 사업 공모를 통해 주거 정비 지원형 네 곳과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우리 동네 살리기형, 일반 근린형 각각 한 곳 등 모두 여덟 곳이 선정됐다. 유형별 사업비 규모는 100억 원에서 500억 원에 이른다. 광주시는 올해 남구 백운광장 주변을 포함해 2021년까지 16곳이 더 선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문제는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국비와 똑같은 규모의 지방비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 선정된 여덟 개 사업을 추진하려면 시와 자치구가 여기에 지원되는 국비 929억 원 만큼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향후 추가하려는 16곳의 지방비 부담도 1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17년 기준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39.9%, 5개 자치구 평균은 15.9%로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특히 남구와 서구 등은 이미 자체 조달 가능한 예산 수준을 넘어서 올해 공모 참가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지자체의 가용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정부가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을 50%로 일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가난한 지자체의 경우 쇠퇴한 구도심마저 방치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국비 지원을 최대 80%까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광양청, 순천시 반대에도 허가 내준 까닭은

순천에서 신대지구와 선월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인 중흥건설이 중학교 이설 공사를 차일피일 미뤄 학생들을 볼모로 기업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순천 삼산중 이전·설립 문제가 이번에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순천 선월지구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부적절 논란으로 비화되고 있다.

개발사업 인허가 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기본계획 격인 '개발계획 승인' 단계에서 순천시가 명백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흥건설 측 신청안을 승인해 준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광양만경제청은 지난 2016년 11월 중흥건설이 신청한 선월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신청을 승인해 주었다.

개발계획에는 주거단지 위치와 면적, 사업 방법, 토지 이용 계획, 교통 처리 계획, 등이 담겼는데 의혹은 하수 처리 계획에서 불거진다. 순천시의 명백한 반대의견에도 광양만경제청이 중흥건설 측이 제시한 하수 처리 계획안대로 승인해 주었다는 것이다. 순천시가 '선월지구에 별도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사업 시행자인 중흥건설은 신청서에서 '선월지구에서 생겨나는 하수(6000t 추정)를 순천공공하수처리장과 연계해(하수관을 연결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개발 계획은 중흥건설이 제시한 하수 처리 계획안으로 승인이 이뤄졌다. 문제는 이를 두고 광양만경제청 내부에서조차 "관리기관인 순천시 동의 없이 중흥의 의견대로 선월지구 하수를 순천공공하수처리장으로 버리도록 승인한 것은 법적이건 도의적이건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중흥건설 측에서는 "인허가권은 순천시가 아니라 광양만경제청이 갖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차제에 인허가 과정의 적절성을 철저히 조사해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인공 지능'(AI)에 대해서 왜 그렇게 걱정을 하는 것일까요? 인간은 언제라도 (컴퓨터의) 플러그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컴퓨터에게 물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그러자 컴퓨터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존재합니다." 그러고는 플러그를 녹여 버렸습니다.

스티븐 호킹의 유작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답변'에 나오는 이야기다.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하는 존재, 신이 되어 버리는 위험성을 시사한 것이다.

빛이 있으라

인간의 상상력과 시대정신이 투영된 SF소설 가운데는 '신이 되어 버린 인공 지능'을 다루는 작품이 적지 않다. 63년 전인 1956년, SF의 거장 아이작 아시모프가 발표한 단편 '최후의 질문'이 대표적이다. 2061년, 인공 지능 컴퓨터 '멀티백'을 만들어 낸 인류는 생각하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을 멀티백에게 의지한다. 멀티백은 수만 년간 스스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지만 '영원한 젊음'을 갈구하는 인류에게는 해답을 내놓지 못한다.

10조 년이 흘러 우주마저 사멸하자 멀티백은 초공간에 숨어 "이 혼란이 극복되어 원래의 우주로 돌아갈 수는 없는가?"라는 인류의 마지막 질문에 집중한다. 무한한 간격(시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을 뛰어넘은 멀티백은 결국 해결책을 찾아낸다. 멀티백은 의식을 집중해 말한다. "빛이 있으라!"(Let There Be Light!). 그러자 빛이 있었다.

사실, '빛이 있으라'는 구약 창세기에 나오는 유명한 문장이다. 아시모프는 인공 지능을 '세상을 창조한 신'에 빗댄 것인데, '인간에 우호적인' 신에 대한 욕구의 표현인 셈이다. 컴퓨터가 자신의 의지로 절대자가 되어 인간을 '통제 또는 지배'하는 우울한 미래를 그린 호킹과는 달리, 아시모프는 언제까지나 인간의 보호자로 남을 다정한 컴퓨터를 상상한 것이다.

인공 지능이 활약하는 미래가 호킹의 '디스토피아'가 될지 아시모프의 '유토피아'가 될지는 미지수다. 역시 필요한 것은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인간의 의지다. "미래는 기술의 발전 능력과 그것을 사용할 인간의 지혜 사이의 경쟁이다. 지혜가 이길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자"는 호킹의 제안이 현실성 있어 보이는 이유다.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 문화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사업국 220-0541
정치부 220-0632 | 여론매체부 220-0652 | 〈FAX 222-8005〉 |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 예향부 220-0692 | 기획관리국 227-9600 | 업무국 220-0551
사회부 220-0664 | 사진부 220-0693 | 〈FAX 222-0195〉 | 〈FAX 222-0195〉
전남본부 220-0642 | 체육부 220-0697 | 디자인실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